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 5:9)

#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절후 제12주 】

전 주 .....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 비 전 ..... 다함께

♠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24. 다 나와 찬송 드리세 ..... 다함께

♠ 공동기도 ..... 다함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밖에 계신 하나님, 우리 행동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 우리 허물을 지워 주십시오.  
 머리를 주신 하나님, 우리 생각을 명철하게 해 주십시오.  
 입을 주신 하나님, 참되고 진실한 말을 하게 해 주십시오.  
 눈을 주신 하나님, 바로 보고 깊이 보게 해 주십시오.  
 귀를 주신 하나님, 바로 듣고 바로 깨닫게 해 주십시오.  
 손을 주신 하나님,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게 해 주십시오.  
 발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행로를 바르게 해 주십시오.  
 할 일을 주신 하나님, 그 일이 주님의 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위로의 말씀 ..... 시36:6-7 ..... 인도자

♠ 교 독 문 ..... 39. 이사야 55장 ..... 다함께

♠ 영 광 송 .....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함께

대표기도 ..... I. 황경순 집사 II. 윤정덕 장로

사도신경 ..... 다함께

응 답 송 ..... 성가대

찬 송 ..... 185. 내 너를 위하여 ..... 다함께

성경봉독 ..... I. 눅 12:15-21 ..... 다함께

..... II. 마19:27-30 ..... 이순정 권사

찬 양 ..... 성가대

말 씬 ..... I. 하나님으로 부요한 자 ..... 김재흥 목사

..... II. 신앙은 계산이 아니다 ..... 김기석 목사

거둠의 기도 .....	다함께
헌신의 찬송 ..... 366. 어지러운 세상 중에 .....	다함께
헌금봉헌 .....	다함께
♠ 봉 헌 송 ..... 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	인도자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평화의 인사 .....	다함께
♠ 결단의 찬송 ..... 평화의 기도(성 프란시스코) .....	다함께
♠ 보냄의 말씀 .....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세상이 어지러워도 참의 소리 가려듣고, 가는 길 위태로워도 굽은 길을 택하지 않는 이들이 되십시오. 홀로인 것 같아 외로울 때도 주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다 함 께 : 주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산에 재빨랐던 우리를 용서해주십시오. 이제는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살겠습니다. 사랑보다 쉬운 길이 없고, 사랑만큼 아름다운 길이 없다는 것을 아옵니다. 늘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 축 복 .....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b>주일 오후 집회</b>	<b>수요 집회</b>
에스겔 통독강좌(31)	신명기 강해(12)
기도 : 김용해 집사/고속이 집사(29)	기도 : 김용진 권사

<b>다음 주 예 배 위 원</b>	<b>설교</b>	<b>기도</b>	<b>성경봉독</b>
	김기석 목사 김기석 목사	최성애 집사 조병무 장로	인도자 안길상 집사

<b>8월</b>	영접위원	조병무	김용길	박범희	이순정	박옥순	박미영
	헌금위원	윤정덕	이인웅	김중수	김애경	구명자	김명순

## 스스로 경계하여 조심할 따름

“저는 본래 경박하고 잡된 버릇이 있었는데 벼슬을 하면서 더 심해졌습니다. 이렇게 지내다가는 사람 구실을 못하게 될까봐 두렵기까지 합니다. 깊은 밤에 조용히 일어나 생각해보면 온몸에 소름이 끼칩니다. 혹시라도 훌륭한 선생님의 빛나는 위 의(威儀)를 가까이 모시면서 저의 고질병을 침놓고 뜸질한다면 께침이 있을 듯합니다. 그러나 길이 멀고 아득하니 그저 선생님의 풍모를 우러러 사모하며 스스로 경계하여 조심할 따름입니다.”

1568년 율곡 이이 선생이 퇴계 이황 선생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어쩌면 이이 선생은 궁궐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심란한 마음에 술을 한 잔 마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천리를 깨우는 대학자라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 얽힌 실타래를 푸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학문의 숙절없음’을 절감했겠지요. 설핏 잠이 들었는가 싶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의식은 명료해지고 다시 잠이 올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앉습니다. 어둔 밤과 고요함은 거울이 되어 자신의 존재를 비춰줍니다.

인생이란 ‘되고 싶은 나’와 ‘현실의 나’ 사이의 부조화이고 갈등이라지요? 그는 자신이 속된 일에 매여 있다는 사실을 절감합니다. 그런 대로 자기 속에 있는 경박하고 잡된 것을 학문으로 애써 다스리며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벼슬을 하면서부터 그의 정신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간 천도(天道)를 구하는 선비 정신을 다 잃어버리겠구나’ 하는 생각에 정신은 아득해지고 온몸에는 소름이 돋습니다. 그때 문득 당대의 대학자인 퇴계 이황 선생의 깨끗한 모습이 떠오릅니다. ‘퇴계 선생님이라면 이런 때 어떻게 처신하셨을까?’ 그 모습을 떠올리고 보니 자신의 처지가 더욱 쓸쓸합니다.

그래서 먹을 갈아 편지를 씩니다. 선생님의 모습을 가까이서 뵈 수만 있다면 자기 정신이 세상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일은 없을 것 같다고

줍니다. 존재 자체로 빛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음 자체로 세상의 어둠을 드러내고, 생명의 마땅함을 일깨워주는 이들입니다. 퇴계 선생은 그런 분이셨던 모양입니다. 그 앞에 서면 고향(膏肓, 병이 그 속에 들어가면 낫기 어렵다는 부분)에 든 병이 절로 낫게 되는 큰마음, 때로는 따끔한 침이 되고 때로는 뜨거운 뜸이 되어주어 일그러진 정신을 온전히 회복시켜줄 정신이 마냥 그리운 것입니다.

하지만 울곡은 공사에 매여있는 몸이 훌훌 그 책임을 벗어 던지고 떠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잘 압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사람은 땅을 짚고 일어서야 한가지요? 갈 수 없다면 모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 깊은 곳에 선생님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언제든 여쭙고, 언제든 매를 자청할 수 있게 말입니다.

이런 선생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참 행복합니다. 일상은 우리 삶의 터전이지만, 때로는 우리 정신의 무덤이 되기도 합니다. 일상에 갇혀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저버리고, 덜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 올인(all-in)하는 것이 현대인들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황새 한 마리가 수렁에 빠졌는데 다리를 빼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에게는 긴 부리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는 부리를 수렁에 넣고 그것을 의지하여 다리를 빼냈습니다. 그러나 무슨 소용입니까? 다리는 수렁에서 빠져 나왔지만 이번에는 부리가 박혀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자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다리를 수렁에 넣고 부리를 뽑아냈습니다. 그러나 무슨 소용입니까? 다리가 수렁에 박혀 꼼짝도 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인간의 상황이 이와 똑같습니다. ‘동에는 어둠’이, ‘서에는 가소로운 우쭐거림’이 가득 찬 세상입니다. 지금은 울 때입니다. 잠에서 깨어나 문득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돌아보는 울곡 선생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더욱이 마음에 모실 스승이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스승이 있나요? 고질병 든 우리 마음을 침과 뜸으로 고쳐주실 분말입니다.

아, 우리가 마음만 열면 언제라도 들어와 우리의 빛이 되고 길이 되실 스승, 경박하고 잡되고 이악스러운 우리 정신을 맑게 하시고 온전케 하실 스승, 예수! (석)

## ▣ 마/음/으/로/읽/는/글

### 조용한 숲 속에

조용한 숲 속에, 흘러가는 시냇물을 가르는  
검 같은 나뭇잎들 위에  
평화가 있다. 시냇물은 꿈속에서인 양,  
이끼들의 금빛 끝에 내려앉는  
해말간 하늘의 푸름을 반사하고,

검은 참나무 밑에 나는 앉았다. 그리고  
생각을 버렸다. 지빠귀 새가 나무 높이  
내려앉았다. 그밖에는  
조용할 뿐, 그 고요 속에서  
삶은 장려하고, 정답고, 엄숙했다.

내 개 두 마리가 날고 있는 파리를  
삼키려고 노려보고 있는 동안,  
나는 내 피로움을 대단찮게 생각하게  
되었고, 체념이 내 영혼을  
슬프게 가라앉히는 것이었다.  
(프랑시스 잠)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방현복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장    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이용한    윤석철  
성가대장 : 이용한    지휘 : 윤주원    반주: 최윤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 장 : 이순정

## ◇ 헌 금 영 수 기 ◇

### 십일조헌금:

김춘려 김철수 유영남 김종훈 안경숙 박창운 허정윤 김용진 박효선  
 홍순구 안홍숙 이한림 김명희 정완수 김재광 이운용 이광용 형인순  
 박영숙 김혜권 박영희 조병무 송양진

### 월정헌금:

권혁순 박혜경 이지훈 문금석 박석희 조항미 김남종 오복순 이정은  
 조병주 김성자 김종문 지명주 유혜경 김정섭 송의섭

### 감사헌금:

임승동 백혜숙 김명순 조항범 오현정 문금석 김용진 박효선 표명화  
 서정순 이봉옥 박옥순 무명1

### 생일감사헌금:

윤정덕 이정은 최인환

##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 음 장 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침	침
베들레헴	윤 정 덕	정 경 례		
안 디 옥	임 정 자	곽 권 희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갈 릴 리	조 병 주	박 애 순		
베 다 니	임 창 선	박 흥 재		
시 은	박 효 선	허 정 윤		
엠 마 오	최 속 화	권 미 정		
에 베 소	이 순 정	한 선 희		
빌 립 보	최 종 원	이 형 숙		
가 버 나 움	구 성 실	안 홍 숙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두 란 노	안 종 일	정 현 주		

##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임원회** : 예배 후 8월 정기임원회가 있습니다.
2. **신앙강좌** : 다음 주(29일) 오후집회는 제4회 신앙강좌로 모입니다. 박범회 집사님이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의 실상과 목표>에 대해서 강의합니다. 역사를 보는 새로운 눈을 얻게 될 것입니다.
3. **청파 장학생** : 우리 교회의 귀한 젊은이들에게 장학금을 드립니다.  
교사 - 김남홍 한지혜 황건호 박인혁    성가대 - 박운양
4. **평화 포럼** : 감리교 평화교육정책위원회가 주최하는 열린 포럼이 26일(목) 오후 3시 감리회관(광화문) 16층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교육과 평화>를 주제로 한 이 포럼의 강사는 전성은 선생님(셋별중학교 교장)이십니다.
5. **배너 만들기** : 여선교회가 중심이 되어 기독교의 절기 상징을 담은 배너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는 목요일(26일) 오전 10시 교회에서 모입니다.
6. **유치부 야외예배** : 상암동에 있는 하늘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오후 3시 경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7. **신앙실천** : 처서(處暑) 절기를 맞고 있습니다. 영적인 나태를 청산하고, 새로운 각오로 신앙생활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하루 일과 중에 기도 시간과 성경 묵상하는 시간을 꼭 마련하십시오.

\* 헌화 : 송남철 (아버님 추도)

##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6: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